

2023년 1월 28-29일 주말 예배

새로운 습관 5. 역경을 이기는 습관 만들기

역경을 이기는 습관 만들기

고린도후서 4장 10절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역경’ 생각하기.

오늘 묵상을 통해서는 ‘역경’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운 일을 역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챔버스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역경’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은 번역된 제목보다 영어 제목이 훨씬 더 요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habit of enjoying the disagreeable’ 이 제목을 ‘나의 뜻과 맞지 않는 불쾌한 일을 즐기는 습관’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오늘 묵상에 나오는 ‘역경’이라는 말을, 전체적으로 ‘나의 뜻과 맞지 않는 불쾌한 일’로 해석하면 챔버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역경’이라는 것은 어떤 ‘fact’에 근거하기 보다는 우리 감정에 더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 마음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즐겁게 의미 있게 여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라면 그 반대의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챔버스는 ‘이 감정의 중요한 기준이 누구의 맘에 드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 이 또한 역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경이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준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면 역경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오기 보다는 지금 닥친 그 일이 역경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지금 일어나는 일을 ‘fact’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실들을 우리 마음의 거울을 통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있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왔다. 잠시 외출 후 귀가한 나무꾼은 집에 도끼가 없는

것을 알았다. 그는 대뜸 감서리나 배추서리를 좋아하는 악동, 앞집 아이가 흔쳐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집 앞을 지나는 아이의 걸음걸이가 마치 도끼를 훔친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다. 아이와 대화할 때 아이가 하는 말도 도끼를 훔친 일을 둘러대는 말로만 들렸다. 아이의 말과 행동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자기 도끼를 훔친 사실을 감추려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날에도 나무꾼은 산에 나무하러 갔다. 그리고 도끼의 행방에 대한 기억이 났다. 어차피 내일도 나무하러 올라올 것이니 도끼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산에 감춰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날 하루 종일 아이를 대했던 자신의 태도가 떠올랐다. 나무를 해 산을 왔을 때 앞집의 아이의 모습과 행동은 예전처럼 천진난만하고 귀여웠다.

결국은 자신의 마음의 문제였다. 그제나 이제나 사람살이에 있어서 마음먹기가 늘 문제인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는 신양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역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역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불쾌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시는 일에 동의 할 수 있을까요? 챔버스는 오늘 이것을 ‘역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고 싶은 습관은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진실성과 믿음의 여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경’은 우리 삶에서 ‘시급석’이 됩니다.

역경을 통해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역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 반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지의 여부는 ‘역경’(나의 뜻과 맞지 않는 불쾌한 일)을 당해보면 압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물었다. “왜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너는 계속 공급이 없다는 타령을 하지만 이사야서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1:19-20)라는 말씀이 있다.”

나도 잘 아는 말씀이었다. ‘그동안 아주 잘 순종했는데’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성령은 계속 말씀하셨다.

"너는 이 사역에서 시키는 일은 다 순종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했다.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곧 네 태도다. 지금 네 태도는 불손하다!"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 이 또한 역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이런 문제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 우리의 입맛에 전부 맞을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는 사역지에서 열심을 다해 순종한다고 생각했지만 열매가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깨달음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시키는 일을 모두 순종하였더라도 즐거이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손한 태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십자가'가 아닐까요?
사도바울은 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에게서 십자가는 그의 인생에 역경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묵상 팀에서 잘 정리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 Disagreeable에 대한 담임목사님의 설명에 대해 공감합니다.

설교문 첫 번째 주제에 있는 '존비비어의 순종' 속 고백은 출애굽 시 모세와 아론이 므리바 물가에서 보인 불손(?)한 순종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을 연상시키며 Disagreeable 한 명령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은 필연적일 수 있는 주님의 명령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즐겨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 즉 습관을 만들어갈 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한 선택지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위의 상황을 반영한다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첫째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선택(내 생각을 따름)은 이미 불순종이고

두 번째로 '주님, 이건 아닌데요. 하지만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불손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주님의 생각과 도우심을 믿고 즐겨 순종하는 것이죠(정답).

우리가 소위 '믿음의 추억'이라고 말하는 체험적 신앙으로 그 결과를 맛본 사람이라면 더욱 즐거이,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선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와 같은 체험이 없다면 한 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을 보이면 어떨까요?(말3:10)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뜻이 맞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드러나기를 열망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불일치할 때도 “주님, 저는 이 일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이때 우리 삶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이란 주님의 뜻이 우리와 불일치 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을 나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역경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일이 역경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설득해 나의 뜻과 일치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역경’이라는 말을 본문 말씀과 연결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역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자연적 기질이나 본성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순종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은 ‘자아의 죽음’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죽어야 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참 생명임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일치 않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역경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역경을 이기는 습관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우리의 습관들, 이겨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 팀의 최지원 집사님이 나눈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역경’이라는 말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성령님이 막으시면서 유럽으로 가라고 발길을 돌리셨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동의할 수 없는 역경이 아니었을까?

...

사소하게 난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는 어떤 충돌을 경험했을 때는 살짝 유쾌하지 않다거나, 동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 더 복잡하고 힘든 사건들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역경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역경’이라는 단어에 대한 묵상 다음으로 부딪혔던 벽은 역경을 이기는 습관으로 제시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웠다. 습관이라면 경건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을 생각해왔는데, 바로 전 묵상도 그렇고 역경도 그렇고 내면적인 부분을 습관으로 만든다는 발상이 신선했다. 내면을 개발하는 것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 것...

새로운 습관 만들기

주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주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하신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하나님과 다투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혹 이런 상황에서 ‘자기연민’에 빠지면 우리를 통해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드러나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한 선택의 가능성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불일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김성권 장로님이 묵상 팀에서 나눠주신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이 뜻이 불일치하는 역경에 직면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낙타는 몸속에 물을 지니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 이 희망으로 사막이라는 역경을 넘어간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물, 은혜의 물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어떤 역경이 가로 놓일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

‘불일치’는 늘 우리 안에 확신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순간이라면 이러한 ‘불일치’를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인류 최초의 불순종은 하와가 눈에 보기에 근사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근사함이 아니라,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일어날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결국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불일치를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지 여호와의 동산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영혼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이나 기억,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면 ‘불일치’의 상황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키지 않는 일을 즐기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갈망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쾌한 일을 해야 할 때,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래 전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봉사를 하다보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은데 무엇을 선택하죠?”

그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전부 어렵고 험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가진 우리의 선택과 생명이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최지원 권사의 목상글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좋은 답을 제시한 글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지원: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나를 내려놓는 것, 자아를 버리는 것이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을 해결해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처럼 완전히 예수님으로 덧입혀지지 않는다면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는 새 옷을 입을 수 없듯이,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듯이.. 저 또한 여전히 ‘과정’을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 가장 큰 희소식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돋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조정’의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점점 애써서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되어져 가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걸 경험합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맞닥뜨릴 이 유쾌하지 않은, 때로는 역경 일수도 있는 일들을 어떻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가?

설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일치의 상황을 즐기는 습관 만들기?’

신앙의 깊이가 다 다르듯이, 오늘 챔버스의 글을 보면 적잖이 당황하거나 혹은 불쾌한 것도 힘든데 즐기라고? 너무한 얘기 아닌가? 라고 말하거나, 다소 무리해 보이는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법 한데요 ^^

그럼에도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러한 상황이 ‘익숙’해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중요한 것은, 불일치의 상황을 반복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 선순환의 구조(불쾌함→즐기는)로 바꾸어가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낯설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너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처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한 신뢰하는 것입니다(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유쾌하지 않은, 동의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과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언제나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4:7)’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죽을 우리 육체 안에 보배로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아,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바울처럼, 내 삶에 크고 작게 하나님과 불일치되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되기를 소망합니다.